

시책건의명	가축분뇨 발생기준 양분수지 평가결과 이용 「팔당클린농업벨트」 조성사업 순환농업 정책 추진					
건의부서	경기도청 농정국, 용인시, 남양주시, 이천시, 광주시, 여주군, 양평군, 가평군					
연구개발자	소속기관	경기도농업기술원 (환경농업연구과)	성명	강창성	전화 및 e-mail주소	031)229-5821 cskang@gg.go.kr
공동개발자	"	"	"	노안성	"	031)229-5826
	"	"	"	임재욱	"	031)229-5820
	"	"	"	김영호	"	031)229-5701

1. 건의내용

- 팔당수계 7개시군의 읍면동별 가축분뇨 발생을 기준한 양분수지 평가결과를 이용하여 양분총량제 등 가축분뇨 순환농업 정책자료로 활용
 - 대상시군 : 용인, 남양주, 이천, 광주, 여주, 양평, 가평
 - 양분수지 평가결과에 따라 각 시군의 읍면동별 가축분뇨 자원화 및 정화 목표량 설정 및 지역간 축산자원 순환계획 수립
 - 가축분뇨 정화를 위한 중장기 추진계획 수립과 공공처리 시설 설치위치 선정 및 시설확충을 위한 재원조달(국비신청 등) 근거자료 등으로 활용

2. 현행제도(현행정책)

- 경기도는 농업으로 인한 팔당상수원 오염을 막기 위해 오는 2009년부터 팔당수계 7개시군을 「팔당클린농업벨트」로 지정(논 21.8천ha, 밭 19천ha 등 40.8천ha, 4만여 농가), 자연순환형 청정농업의 모델로 만들기 위한 시책 수립
- 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7조 및 제8조에 의거, 비료 공급량이 수요량을 초과하는 지역의 축사 이전시 이전비 또는 철거비 지원이 가능하고(국비) 환경보호를 위해 가축사육 제한 가능
- 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42조에 의거, 가축분뇨 공공처리와 관련한 비용을 국비로 확보 가능
 - 법 제42조 : 국가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공공처리 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.

3. 현황 및 문제점

- 우리 도는 축산 옹도로서 가축분뇨 발생량이 연간 1,100여만톤으로 전국의 20%를 점하여 가축분뇨가 환경부담 요인임

- 가축분뇨에 다량 함유된 질소, 인산 성분은 작물의 필수 영양원임과 동시에 환경오염원이 되어 과학적인 친환경 순환이용 필요
- 팔당수계 지역의 가축분뇨 자원화 물량은 작물필요량 대비 질소 1.5배, 인산 2.8배(전국 각각 0.5, 0.8배)에 달하여 타지역 반출, 정화량 확대 등 필요
- 정부의 「수질오염총량제」, 도의 「팔당클린농업벨트」 조성사업의 ‘양분총량제’ 본격 추진에 대비하여 가축분뇨 양분수지 분석이 시급하며, 이에 근거한 순환정책 수립 필요

4. 주요연구결과('08, 경기도원)

- 팔당호 주변 7개시군 읍면동별 양분수지 분석 및 정화비용 산출
 - 양분수지(질소, 인산) : 용인 262, 553, 남양주 97, 141, 이천 176, 327, 광주 99, 178, 여주 119, 225, 양평 97, 188, 가평 139, 278
 - 잉여 가축분뇨 정화비용(백만원) : 용인 67,362, 남양주 5,092, 이천 102,960, 광주 3,333, 여주 42,636, 양평 16,545, 가평 12,278
- ※ 양분수지 분석기준 : 가축분뇨 발생 양분량 ÷ 작물재배 양분 소요량
 - 가축분뇨 양분발생량은 정화방류 및 공공처리량과 질소 손실을 40%를 제외하고 산출된 양을 기준함
- ※ 7개시군 읍면동별 양분수지 및 정화비용 세부내용 붙임 <참고자료> 참조

5. 기대효과

- 팔당수계 지역의 축산에 의한 비점오염을 읍면동 단위로 체계적 관리 가능
 - 양분총량제 도입에 대응한 지역단위 양분수지 근거 가축분뇨 자원화 및 정화처리를 위한 과학적 목표량 등 순환정책 설정 (양분수지 목표 : 100)
 - 가축분뇨 공공처리 시설 확충계획 및 실천전략 수립 : 설치위치, 재원조달 등